# 지역 스마트팜 농산물, 대형마트서 판매

### 고흥·나주 청년 재배 딸기·오이 등 광주 롯데마트서 판매
### 전남 스마트팜 농가 증가…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도

IT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농작물 재배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팜'(Smart Farm)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스마트 팜' 설치 농가는 67개(면적 33.3ha)로, 지난해 33개(〃26.6ha)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지역 스마트 팜 농가는 2014년 10개(면적 11ha), 2015년 25개(10.9ha), 2016년 40개(17.7ha), 2017년 10개(10.2ha) 등 총 185개로 늘어났다.

스마트 팜은 시설원예·축사 등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온도·습도 등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스마트 팜을 도입해 재배하면 노동력은 16% 절감하고 생산량은 27.9% 높이며, 병해충·질병 예방효과는 53.7%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는 2022년까지는 '스마트 팜' 청년 창업을 위한 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으로 구성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조성된다.

33.35ha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팜 밸리'에는 국비 589억원 등 총 사업비 11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기반조성·핵심시설 실시설계 수립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81억원을 들여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고, 순천대와 협업해 내년부터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20개월)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스마트팜'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상무·수완·첨단·월드컵점)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역 청년이 생산한 '스마트 팜' 농산물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농정원은 만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20개월 동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1기 교육생인 고흥 이창복씨와 완주 김해성씨는 '스마트 팜' 딸기 1kg을 1만2800원에 선보인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화순 고종채씨의 파프리카(1개·990원)와 가지(1봉·2580원), 나주 김영신씨의 취청오이와 다다기오이 1봉을 각 3480원에 내놓는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구매 고객 선착순 50명에게 스마트 팜 딸기(500g)를 증정하며, 이들 농산물을 롯데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만날 수 있다.

김희수 농정원 담당자는 "스마트 팜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마트 기획전을 열게 됐다"며 "시식회도 열며 청년 농업인의 딸기별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5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에서 매장 직원들이 '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팜' 기획전은 광주 롯데마트 4개점에서 18일까지 진행된다. 〈롯데마트 제공〉

## 전남 대표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 개발

### 과일산업대전서 홍보관 운영
### 고흥 커피 등 신소득 작물 육성

연말까지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가 개발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3~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아열대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농협은 올해 초부터 아열대작물 아카데미클럽을 운영하며 '나주 한라봉', '고흥 커피', '영광 애플망고' 등 아열대 농산물을 신소득 작물로 육성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바나나, 파인애플, 백향과, 파파야 등이 전시됐다. 농협 측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백향과 에이드'와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를 넣어 만든 김밥을 시음·시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인 '상큼애' 사과, 단감 등을 할인 판매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애를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참여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열대 농산물도 통합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해 효율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축산농협 신규조합원의 날 행사

광주축협(조합장 김호상·가운데)은 지난 14일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3600장과 김장김치 1500포기를 전달했다. 〈광주축협 제공〉

### 김장김치·연탄 사랑 나눔
### 경로당·저소득층 가정에 전달

광주축산농협이 조합원 800명 돌파를 앞두고 '2019년 신규조합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15일 광주축협은 지난 10일 광산구 신촌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신규조합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 이념과 축산컨설팅'을 주제로 ▲조합 신용·경제사업 소개 ▲축산경영 정보 공유·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조합', 'NH농협 손해보험·생명보험 연도대상' 등을 수상한 광주축협은 내년 서구 마륵동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광주축협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축산사랑 나눔 봉사단'이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장김치 사랑 나눔 및 연탄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봉사단원들은 1500포기의 김장김치와 연탄 3600장을 경로당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김호상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광주축산농협이 되겠다"며 "조합원들의 양축경영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잘 전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도경영과 실리주의경영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NH농협생명 광주총국 생명 우수직원 워크숍

### 전년비 265% 매출 증가

치매보험 등의 수요 증가로 NH농협생명 광주총국이 지난해 대비 26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NH농협생명 광주총국(총국장 송대범)은 지난 13일 광산구 광주무역회관에서 '2019 광주생명 우수직원 워크샵'을 열었다고 밝혔다.

광주총국은 다른 지역 평균 매출 증가율 110%를 훨씬 웃도는 265%의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올해 광주농협 4명, 남광주농협 1명, 서광주농협 1명, 송정농협 1명 등 2012년 농협생명 출범 이후 '연도대상'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수협, 수산업부진 극복 신용사업서 답 찾다

### 지역 조합들, 영업점 수도권 진출…예금·대출 등 공략

전남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영업점 5곳 중 1곳은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부진을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으로 만회하려는 지역조합이 늘면서다. 지역조합들은 수도권 점포를 늘려 예금 고객과 지역 수산물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수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본부 소속 18개 조합이 운영하는 88개 영업점 가운데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점포는 18개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점포를 둔 수협은 여수수협(서울 양천·반포·경기 부천중동)과 고흥군수협(서울 남가좌·신목동·경기 광명)으로, 각각 전체 11개 점포 가운데 3개 점포를 수도권에 냈다. 영광군수협은 5개 점포 가운데 2개 점포(발산역·강남역삼)를 서울에 두고 있었고, 해남군수협 8개 점포 가운데 2개는 경기지역에 있었다. 광주 충장동에 본소를 두고 있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전체 3개 점포 가운데 2개가 서울·인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목포수협은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역에 두번째 서울 영업점을 열었다. 보라매지점 반경 1.5㎞ 이내에는 관공서와 대형병원, 대기업 사옥 등에 9만여 명이 근무하고 21만여 명이 거주하는 등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목포수협 측 설명이다. 수협은 보라매지점 개점 기념으로 경품행사, 예탁금 증대 캠페인, 건전여신 증대 특별캠페인 등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펴고 있다.

이외 완도소안수협은 광산구 하남동에, 장흥군수협은 상무지구, 여수수협은 충남 천안, 근해유망수협은 경남 삼천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경남 통영에 점포를 내며 영업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농협 광주지역·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점포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수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수산업 시장 여건을 반영해 신용사업으로 눈 돌리는 지역조합이 늘고 있다"며 "수도권 진출은 전남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한우 반값 찬스…롯데마트 18일까지 할인행사

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 1+등급 이상 한우를 최대 50%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한우 상품기획자(MD)의 경매 참여로 40t의 물량을 확보했다.

한우 1+등급은 100g에 1만1600원이지만 엘포인트 회원의 경우 6960원에 구매할 수 있고,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5780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1++등급은 정상가 1만2000원에서 598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